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8.31.시행)

1. 관련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중수본 회의, '23.8.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746('23.8.31.)호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3.8.31.)'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지자체 및 협회에서는 소관 장기요양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변경 전(~'23.8.30.)	변경 후('23.8.31.~)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지</li> </ul>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지</li> </ul>
선제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li> <li>종사자는 필요시 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지</li> <li>유지</li> </ul>
감염취약 시설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외부강사 허용</li> <li>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li> <li>면회객 사전음성 확인(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외부강사 허용</li> <li>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유지(단,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 시만 RAT)</li> <li>면회객 사전음성 확인(권고)</li> </ul>

3. 아울러 지자체와 협회에서는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발생 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병 발생 상황 지속 모니터링, 시설 감염 예방 관리 등 자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염병관리과장), 서울특별시(어르신복지과장), 부산광역시(감염병관리과), 부산광역시(노인복지과장), 대구광역시(건강증진과장), 대구광역시(어르신복지과장), 인천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인천광역시(노인정책과장), 광주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광주광역시(고령사회정책과장), 대전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대전광역시(노인복지과장), 울산광역시(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보훈노인과장), 세종특별자치시(감염병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지사(감염병관리지원단장),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노인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경로보훈과장), 전라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어르신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강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상담센터장,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정지은 행정사무관 조윤경 요양보험운영과장 전결 2023. 8. 31. / 임동민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4319 (2023.08.31)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13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517 팩스번호 044-202-3971 / [jje2015@korea.kr](mailto:jje2015@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